

진문영, 「봄이 왔다」 "새까 초록 메안도 뽕 낚지른다 / 나는 봄색이 있다 / 손목은 갈리아겠다"

봄, 놀라서 뒷걸음질치다

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

괴물이 함께하는,  
희망적대안은 많은  
느낌

진문영, 「비강 풍경」

"뱀 나오라요. 뱀아 제발

나오경 독 동은 이빨로 뒤꿈치 잡으려"

슬픔

물에 붙은 나무토막, 그 위로 또 비

가 내린다

은연하도 않은 뚝

자본주의

형형색색의 어둠 속은

바다 밑으로 뚫린 백만 킬로의 컴컴

한 터널

-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?

노동자들의 입장 대변하는/이입하는 시 없음.

북평, 북한, 북한, 근성 → 열정론리.

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식. by 브들레르

문학

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

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

울음

진문영, 「너편 노래의 시작」

"나의 눈은 처음 보겨진 지하철의 눈부심 속에"

너무 밝은 빛이 주어져도 눈부심은 눈먼 듯 참.

시인은 독백

"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"

부러진 피리로 벽을 탕 탕 치면서

진영 「무선전자」  
"우이 빈 거대한 드럼통을 오르내리며 울었을까"  
우울하고 기묘하는 무선전자와 대조

혁 명

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

가호등 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잎맥

의 길

이름 속에서만 느껴지는 각종/움직이는 이미지

시, 일 부 러 뜯 어 본 주 소 불 명 의 아 름

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

다 운 편 지

너 는 그 곳 에 살 지 않 는 다

진 은 영, 「 일 공 개 의 단 어 조 된 사 전 」

→ 진영의 세계 재인식. ...를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. 그녀의 모든 시가 이름을 패배한 한 것은 아니다.

진영, 「이전 흔들들과 이번 흔들 사이의 고요한 거리」에서

안희정 "이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/ 네가 좋아하든/ 예쁜 여자, 동명성, 붉은 끝이나 거짓말과 같은 것들이다."

기자의 관영은 타파하고 사뭇게 평평하고 의미론 부여하는 것이 장한 시인이라고 생각한다.